



전북대병원서 '제19회 환자안전의 날' 열려

전북대학교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환자안전 행사를 통해 병원 내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안종철)은 19일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해 병원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제19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의료!(Safe care for life!)'를 주제로 18일부터 21일까지 호암기전문진센터와 어린이병원을 잇는 연결복도와 모악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본관과 호암기전문진센터 연결복도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내원객과 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환자안전 원칙을 익힐 수 있도록 환자안전 퀘즈판, 환자안전 OX 퀴즈, 수술·시술 부위 표시 게임, 낙상 예방 퀴즈 등 참여형 캠페인이 펼쳐졌다. 모악홀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부서별 환자안전 활동 우수사례 시상과 상반기 환자안전지킴이 챔피언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환자안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안전 활동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외래와 병동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한 환자확인 참여, 낙상 예방 행동수칙, 투약 시 확인사항 등 진료와 입원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경남 거제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전북농협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를 찾아 토사 제거와 침수된 기자재 정리 등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복구 활동에는 김성훈 본부장을 비롯한 전북농협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피해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경남 거제 지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시간당 최대 124.5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거제 988mm, 통영 778mm 등을 기록하며 여름철 전체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린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산사태와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농작물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경남 수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을 찾아 전기시설 점검과 복구 지원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9일 공사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를 찾아 수해 피해 및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전 사고에 대응해 왔으며, 비가 그친 이후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통영 서호전 통시장 점포 300여 곳의 전기설비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피해 상인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거제시에서는 장평초등학교 인근 수해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과 전기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침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갑전과 누전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을 찾은 남화영 사장은 수해 피해 상황과 복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고립·은둔청년 회복’ 해법 찾다

전북대 간호·사회복지 학생 20명, 일본서 통합돌봄 실천 탐구

전북대학교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2026 글로벌 PBL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공 간 협력 교육과 일본 현장연수를 운영하며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대는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IPE 기반 Co-Production PBL을 통한 고립·은둔 청년 회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간호학과 김지영·정재원 교수와 사회복지학과 김서현 교수가 참여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해 간호학과 10명, 사회복지학과 10명 등 총 20명의 학생이 함께했다. 2026 글로벌 PB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국내 사전학습 3일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일본 홋카이도 현장연수로 진행됐다. 국내 사전학습은 문제중심학습(PBL)과 전문직 간 교육(IPE)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간호학과 정재원 교수는 전문직 간 교육(IPE)의 의미와 필요성을 소개하며, 고립·은둔 청년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일 전문직의 접근을 넘어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가 서로의 전문성과 관점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복합성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방안을 함께 탐구했다. 특히 고립·은둔 경험 당사자가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학습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전북창원미래센터를 방문해 국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과 현장 실천 사례도 살펴봤다. 일본 현장연수에서는 삿포로 청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현지 지원체제와 실천 사례를 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현황을 비교했다. 이어 홋카이도의료대와 학생들과 일본의 고립·은둔 경험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학과 오쿠다 가오리 교수의 토론회 수업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양국



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학생들은 홋카이도의 정신장애인 공동체인 메텔의 집을 방문해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 자기결정권과 강점을 존중하는 회복 중심 돌봄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일방적 관계를 넘어,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배우며 회복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관계의 중요성을 성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공 간 협력(IPE), 당사자와 전문가의 공동생산(Co-production), 한·일 현장 비교 문제중심학습(PBL)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윤종 학생(간호학과 4년)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서로 다른 전공의 관점을 나누고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서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한국과 일본의 현장을 직접 비교하고 메텔의 집에서 당사자가 회복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전문가의 역할과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서신동·마령면, 도농 상생 교류... '마령면민의 날' 참석

오랜 자매결연 통해 이어온 따뜻한 우정 재확인

전주시 서신동과 진안군 마령면이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도농 상생과 지역 간 우의를 다졌다. 전주시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지난 15일 열린 '제9회 마령면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마령면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신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면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랜 자매결연을 통해 이어온 따뜻한 우정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양 지역은 단순한 친목 교류를 넘어 농산물 직거래 등 실질적인 경제·문화 교류를 통해 도농 상생을 이어가

기로 했다. 김정호 서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서신페스타' 축제 현장에 마령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 부스를 마련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신동과 마령면은 지난 200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도농 교류 활성화와 지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정호 위원장은 "오랜 시간 이어온 자매결연을 통해 두 지역이 서로의 정을 나누고 지역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직거래와 문화교류 등 실질적인 상생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우석대, 발달장애 학생 자립 지원 기반 마련

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맞손'

우석대학교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고 대학 졸업 이후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호 우석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과 박재경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달장애 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발달장애 학생 상담 및 정보 제공 △진로·취업 지원과 관련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보호자 지원과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장애 인식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이다.

남원 죽향동, '톡톡 사이다 간담회' 추진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죽향동 톡톡 사이다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늦 폭염에 따라 어르신들의 인부를 직접 확인하고, 일상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은주 동장과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요 시정 홍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원협 소속 조합원, 철탄산업훈장 수상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소속 안홍섭 조합원이 최근 '새농민 분상' 철탄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안홍섭 조합원은 43년간 농업에 종사하며 영농일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 영농으로 부채율 0% 경영으로 매년 2억 이상의 농업소득의 모범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 2001년 전국 최초로 시설하우스 복숭아 신기술 도입, 복숭아 신품종 품종별 실증재배·수정향상을 위한 환경정립(온도, 습도), 수세안정화를 위한 Y자 수형에 맞는 전정기술보급,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평식 커튼을 사립형 보온커튼으로 전환, 등유농업용 난방기에서 톨바 난방기로 전환, 관수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지중관수시스템 설치, 가족분을 이용하여 자체 퇴비를 생산하여 과원에 이용하는 순환농업 등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 적극 도입했다. 또한 관행 농업을 탈피해 선도적으로 단경기 시설하우스 재배로 전환하고, GAP 인증 및 2.5kg 소포장 출하를 통해 지역 복숭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통사마을주식회사, 정읍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정읍시 감곡면 통사마을주식회사(대표이사 손문웅)가 19일 정읍시청을 찾아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읍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인에어컨ENG, 폭염 취약계층 위해 에어컨 기탁

정읍에 있는 명인에어컨ENG(대표 박태인)가 영상공유체널 수익금을 활용해 무더위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에어컨 10대를 지원한다. 설치비도 전액 부담하고 직접 설치에 나선다. 명인에어컨ENG는 지난 18일 정읍시에 1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0대를 기탁했다. 기탁된 에어컨은 지역 저소득층 등 무더위 취약가구와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흥부네 곳간 나눔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

남원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오미자) 1층에 마련된 '흥부네 곳간 나눔'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곳간에는 영월사에서 백미 300kg, 김지수 이장(내건마을 200kg), 김재중 이장(하우마을 200kg), 김종삼 이장(취암마을 130kg)의 기부로 총 830kg의 백미가 마련, 저소득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도움이 필요한 160가구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흥부네 곳간의 쌀이 소진되어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김지수 이장은 다시 100kg의 쌀을 추가로 기탁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남원=김기두 기자